

강택민은 스스로 “파룬궁을 진압한것은 어리석은 짓”이라는것을 인정했다

홍콩 “전초” 잡지
2011 년 2 월 월간 대륙
소식란의 앞부분 문장
에서 저자는 중공 전 당
괴수 강택민의 자백을
제시했는데; 문장의 제
목은 “강택민이 평생 후
회하는 두가지 큰 사건”
이다. 강택민은 자신의
죽을 날이 멀지 않다는
것을 알고 2010 년부터
두차례나 주변사람들에

게한평생 두가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말했다. 첫
번째 어리석은 짓은 미국이 유고슬라비아를 폭격
할때 중국령사관에 명령을 내려 철회하지 말라고
한 것이고; 두번째 어리석은 짓은 파룬궁을 진압하
여 자신에게 몇천만 “적”을 만들어놓은 것이다.

강택민은 스스로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어리
석은 짓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종래로 범죄활동
을 멈추지 않았고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날로 가
심해졌다. 1999 년 7 월,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을
진압한 이래 중국의 수천수만의 파룬궁학원들이



로교소, 감옥에 감금되
여 박해로 죽거나 불구가
되었으며 수많은 가정이
망가졌다. 그러나 해내외
파룬궁학원들은 잔혹한
박해속에서도 “쩐싼런”에
대한 신앙을 견지했고 박
해진상을 이야기했으며
중국대륙과 전세계 각국
에서 파룬궁을 지지하는
정의의 목소리가 날로 높
아지고 있다. 2000 년이

래 전세계 30 여개 나라의 35 명 변호사들이 강택
민집단을 공개심판하는 변호사대표를 조직하여
16 개 나라에서 강택민에 대한 17 개 소송안을 제
기했다. 강택민은 형세가 이미 기울어지고 자신
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다소나마 느끼고
있지만 그의 죄는 너무 커서 하늘이 용서할수 없
으며 멀지 않아 수치스러운 끝장을 볼 것이다.

파룬궁박해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
즉시 박해를 멈추고 강택민의 순장품이 되지 말
아야 한다.

칭찬을 받은 인도네시아 파룬궁대오



지난 2 월 27 일, 인도네시아 3 보롱시에 인
도교새해경축시위행진을 거행했다. 초청을 받고
참가한 파룬궁대오는 관중들의 칭찬을 받았다.
시장은 《오라지 않아 맞이할 성시건립일에 계속
파룬궁대오를 요청하겠습니다.》라고 말했다.

인기를 끈 불가리아 파룬궁학원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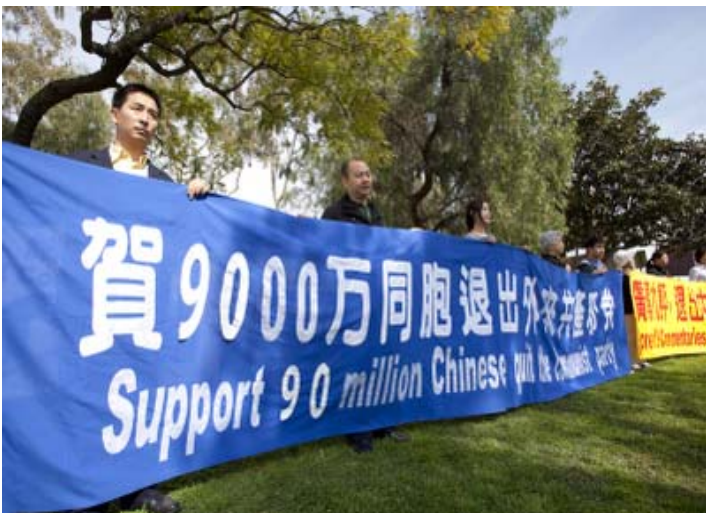
지난 2 월 13 일, 불가리아 플로브디프시 중
심광장에서 파룬궁학원들이 프랭카드와 전람판
을 펼쳐놓고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을 폭
로했으며 아름다운 5 조공법을 전시했다. 수많은
시민들은 몰려와 파룬궁진상을 료해했다.

홍콩 각계에서 9 천만명이 “3 퇴”를 성원



지난 3 월 6 일, 홍콩 각계에서 9 천만 용사들이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하여 “3 퇴”(중공의 당,단,대에서 퇴출)를 성원했으며(윗 사진) 대륙, 홍콩,대만 해외 각계 지명인사들이 집회에서, 중국동포들은 “3 퇴”하여 중공을 해체할 것을 호소했다.

로스앤젤레스 중국인들이 9 천만명이 “3 퇴”를 성원



지난 3 월 6 일, 로스앤젤레스 중국인들이 몬테레이공원시 반즈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9 천만 동포들이 “3 퇴”(중공의 당, 단, 대에서 퇴출)함을 성원했고 중국인들이 자신이 량심에서 우러나와 용감히 중공마귀교에서 퇴출할 것을 호소했다. (윗 사진)

금전으로 나점은 생명을 바꿀수 없다



2009 년 6 월의 어느날, 불법적으로 산동감옥에 감금되어있던 파룬궁학원 러진(吕震)은 (옆사진) 왕감옥장을 만나서 11 감옥구역에서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한 엄중한 정황을 말했다. 왕감옥장은 대노하여 《여기는 공산당의 천하이다.》

라고 말했다.

이튿날, 왕감옥장은 살인범 허효강 등 7 명 범인들을 시켜 러진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땅에 정신 잃고 쓰러지면 찬물을 끼얹어 깨어난 후 또 마구 때렸다. 이렇게 10 일동안 박해를 받아 거의 죽어가는 그를 두발과 두팔을 한데 묶어 놓고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놓았다. 2009 년 6 월 21 일 이른 아침에 러진은 맞아죽었다. 집식구와 정의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산동감옥에서는 러진이 맞아죽었다는것을 승인하고 인민폐 26 만원을 배상했다. 하지만 이 26 만원이 어찌하여 러진의 보귀한 생명을 바꿀수 있겠는가?



연변박해소식

■ 지난 2 월 22 일 오전 9 시경, 리성택, 정철수 등 악경들이 연길시파룬궁학원 예극영(芮克荣)네 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 불법적으로 그를 랍치했다.

■ 설 전에 악경들에게 랍치된 룡정시 로투구진 파룬궁학원 장씨를 근간에 장춘시흑취자로교소로 보내여 박해하려 하고 있다.

■ 지난 3 월 3 일, 아침런공하고 있던 연길시파룬궁학원 주희옥(朱喜玉)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연변정신병원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.

■ 지난 3 월 4 일 오전 11 시경, 도문시석현진 파룬궁학원 류효화(刘晓华)와 왕청현파룬궁학원 정립군(郑立军)、훈춘시파룬궁학원 주씨는 도문시 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불법적으로 랍치되었다.

■ 지난 3 월 5 일 오전, 룡정시파룬궁학원 김태준(金泰俊)、길금옥(吉金玉)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룡정 시간수소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.

